



# 아시아의 석유산업 ⑦

## - 베트남 -

이 자료는 일본석유연맹의 해외조사보고서에서 옮긴 것이다. < 편집자 주 >

### 1. 에너지 수급

베트남은 천연자원의 혜택이 많고 특히 석유·석탄

등 광물자원은 주요한 수출품이다. 국내 일차 에너지 공급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이지만 원유는 수출하고 제품은 수입하는 구조이다. 석탄은 흔히 탄광등 북부에 많고 추정매장량은 약 200억톤이다. 북부는 수력자원

<표-1> 에너지 현황(1993년)

(단위 : 백만 TOE)

	석탄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력	전력	합계
국내생산	2.95	6.42		0.00	1.25		10.62
수입	0.01		3.60				3.61
수출	-0.72	-6.26					-6.98
재고변동	-0.25	-0.12	-0.02				-0.39
1차에너지공급계	1.99	0.04	3.58	0.00	1.25	0.00	6.86
석유정제, 로스등		-0.04	0.04		-0.01	-0.31	-0.33
발전	-1.25		-0.41	0.00	-1.23	0.93	-1.95
최종에너지 소비계	0.74	0.00	3.22	0.00	0.00	0.62	4.58
산업부문	0.41					0.29	0.70
수송부문			1.02			0.00	1.02
기타부문	0.33		2.14			0.33	2.80
비에너지			0.06				0.06

<자료> : OEC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1992-1993

〈표-2〉 1차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백만 TOE)

	1989	1990	1991	1992	1993
석탄	3.02	2.51	2.03	1.72	1.99
석유	2.52	3.16	2.73	3.04	3.63
천연가스	0.02	0.00	0.00	0.00	0.00
전력(수력)	0.33	0.46	0.45	0.64	1.25
공급합계	5.89	6.14	5.22	5.40	6.86
공급합계증가율		4.2%	-15.0%	3.6%	27.0%

의 혜택도 받고 있어 최근 대형수력발전소가 완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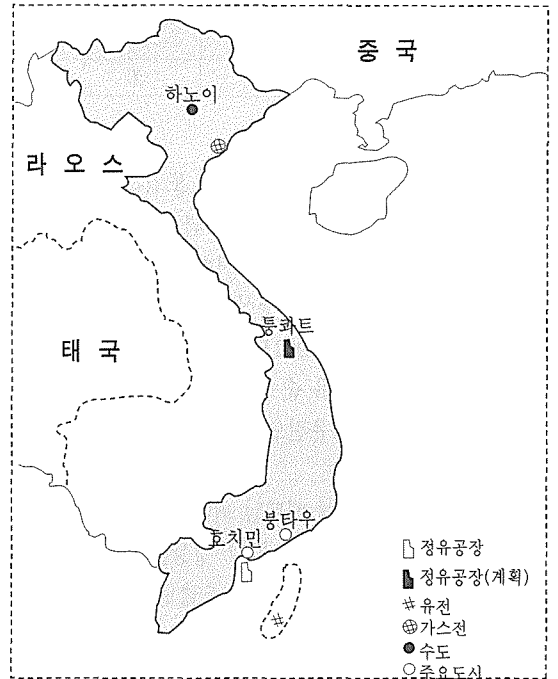
한편 남부는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1994년 5월에 남북을 연결하는 송전선 (전장 1,485 km)을 완성해 전력부족은 다소 해소되었다.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귀중한 외화 획득수단인 원유의 개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자원의 개발, 원유와 같이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이용 (가스화력 발전,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태국으로의 수출, LNG의 수출 등)을 도모하는 것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 2. 원유개발

### (1) 원유 생산량의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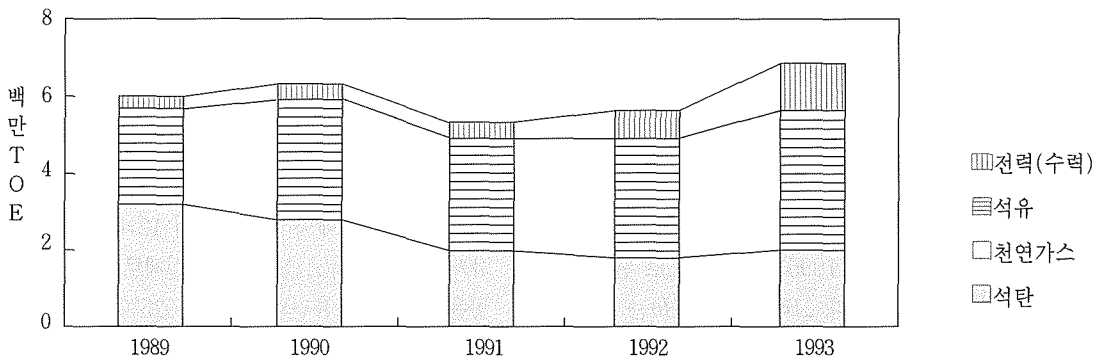
( 베트남 )



베트남은 1970년대초부터 구미의 기업이 석유탐사를 개시했다. 그후 구소련이 참가하여 Bach Ho 유전등이 발견되었지만 베트남 전쟁과 그후 미국에 의한 금수조치 등의 영향에 의해 개발은 많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정부는 원유·천연가스자원의

〈그림-1〉 1차에너지 공급 추이



〈표-3〉 원유생산 추이

(단위 : 천 B/D)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산실적	5	15	30	55	80	110	125	135	150

〈자료〉 : BP통계 (1996년)

개발에 있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12월에 외자법, 1992년에는 석유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개방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에 *Bach Ho* 유전이 생산을 개시한 이후 원유생산은 순조로이 증가하여 1991년에는 원유수출량이 석유제품수입량을 웃돌아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다.

현재 주요유전은 해양유전으로 다음과 같다.

① *Bach Ho* 유전 : 현재 베트남 최대의 유전 생산량은

약 14만 B/D, 성상은 API 40도, 황분 0.04%, 수출량의 반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특히 미나스 원유의 대체품으로 사용된다. 생산지는 페트로베트남과 러시아의 합병회사인 *Vietsovpetro*이다.

② *Dai Hung* 유전 : 1994년 10월에 생산개시, 생산량은

약 2만 5천 B/D, 성상은 API 31도, 황분 0.08%, 생산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BHP (최근 BHP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③ *Rong* 유전 : 1994년 12월에 생산개시, *Bach Ho*와

같은 쿠롱층분지에 위치한다. 생산량은 약 7천 B/D, 성상은 API 40도, 황분 0.04% 생산지는 *Vietsovpetro*이다.

향후 생산전망은 BP통계에 의하면 현재의 확인매장량이 약 5억 배럴이고 이것을 1995년 생산량으로 단순히 나누면 가채년수는 9.2년이다. 그러나 *Bach Ho*는 1996년경을 피크로 감소할 것이지만 그 이외의 유전의 발견

및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면 *P & G (Purvin & Gertz)*는 2000년 20만 3천 B/D, 2005년 21만 3천 B/D, 또 *FACTS (Fesharaki Associates Consulting and technical Services)*는 2000년 36만 B/D, 2005년 44만 B/D로 예상하고 있다.

(2) 원유의 개발·생산·수출에 관한 주요기업

원유개발·생산에 관해서는 수상직할의 국영석유회사 *Petro Vietnam*이 베트남측의 사업주체가 되어, *PS* (생산분배) 계약의 체결을 시작하는 각종교섭 등 대외적인 창구, 국내개발회사의 감독,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 등을 하고 있다. 동사는 하류부문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여 정유공장 프로젝트 및 운할유프로젝트 등도 직접 다루고 있다. *Bach Ho* 원유 등의 수출에 있어서는 1994년 5월에 *Petro Vietnam*의 자회사로서 *Petro Vietnam Trading Company*을 설립하여 동년 10월에 그때까지의 수출창구였던 상업성관할의 *팜페텍* (現 페텍 社)에서 석유수출입부문이 이관되어, 동사가 일원 관리하고 있다.

(3) 일본기업의 원유개발 참여

일본에서 본 베트남 원유는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원의 분산 거리의 가까움, 비교적 고품질 (저황, 경질)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현재 12개의 일본기업이 원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은 *Dai Hung* 유전의 권익 10.625%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타이푼석유개발 (주주 : 石油公園 44%, 住友商社

28%, 재팬에너지·일본석유 각 11.2%, 住友石油開發 5.6%) 뿐이지만, 최근 일본 베트남석유(주주: 石油公團 49.2%, 三養石油 47%, 三養商社 3.5%, 三養石油開發 0.3%)가 자체 시추한 Rang Dong 유전에 있어서 상업적 발견을 했다고 보고했다.

### 3. 석유제품 수급

#### (1) 석유정제 현황과 향후 전망

베트남에 있는 정유공장은 Saigon Petro가 소유한 호치민 정유공장 뿐이다. (정제능력 8천 8백 B/D) 이곳은 주로 태국에서 들여온 콘덴세이트를 처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제 1정유공장의 건설계획은 Petro Vietnam 30%, 프랑스의 Total 30%, 대만의 중국석유공사(CPC) 30%, 대만의 투자회사 CIDC 10%의 출자비율로 FS를 행하였다. 정제능력 13만 B/D, 원료는 자국산과 중동비

율이 7대 3, FCC를 장비한 분해형 정유공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건설장소의 선정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Total은 1995년 9월에 이 프로젝트의 철수를 발표했다.

Total이 원유의 생산지에서도 제품의 대소비지에서도 가까운 남부의 봉타우 근처를 주장한 것은, 베트남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중부의 Dung Quat을 선정하여, 정유공장을 이 지방의 경제발전의 핵으로 하고자 했던 의도로 추정된다. Dung Quat에는 수송코스트가 들고 인프라에도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아 Total은 최종적으로 철수판단을 내린 듯하다. 최근 Petro Vietnam은 Total을 대신하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LG,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미국의 코노코를 선택하여 계속적인 FS를 행하고 있다.

제 1정유공장에 이은 제 2정유공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이어서, 외자주도형 건설도 인정할 방침으로 전하지만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아 확실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표-4〉 정유공장(기존·계획) 현황

	위치	정제능력(천B/D)	완공시기	비고(괄호안은 출자비율)
Saigon Petro	Ho Chi Minh	9	1994	현재 유일한 소규모 정유공장
Petro Vietnam I	Dung Quat	130	2000?	LG(30)페트로나스+코노코(30), CPC+CIDC(10)
Petro Vietnam II	중부~북부	100	2005?	외자도 출자할 전망

〈자료〉 : 각종 자료에 의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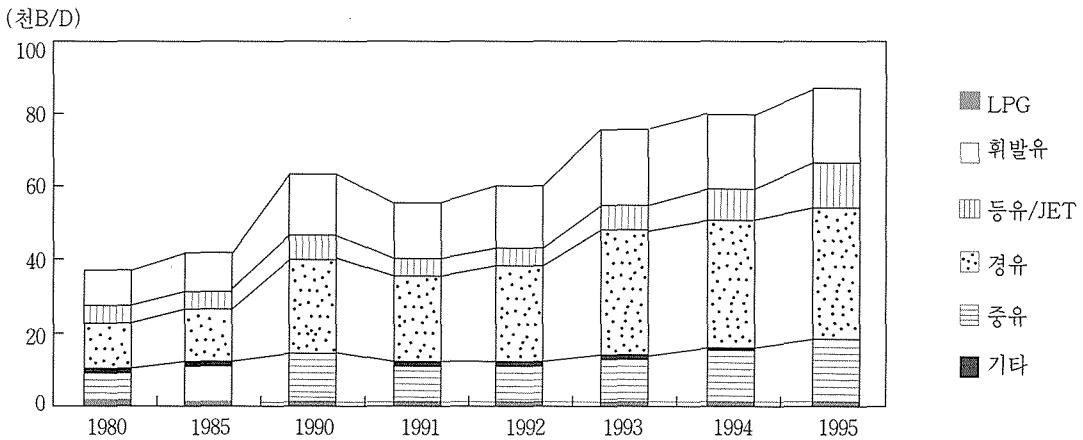
〈표-5〉 국내석유제품수요의 추이

(단위 : 천 B/D)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L P G	0.2	0.2	0.2	0.2	0.2	0.2	0.2	0.2
휘발유	8.6	8.1	15.9	14.2	15.8	19.3	21.0	23.0
등유/JET	5.4	5.5	6.8	6.0	7.1	8.1	9.0	10.0
경유	15.9	17.8	27.2	22.8	25.8	31.0	34.0	38.0
중유	6.6	9.1	12.0	10.8	11.1	13.3	15.0	16.0
기타	0.9	0.8	1.3	1.1	1.1	1.2	1.2	1.4
제품합계	37.6	41.5	63.4	55.1	61.1	73.1	80.4	88.6

〈자료〉 : OEC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1992-1993  
1994, 1995년은 Purvin & Gertz, Inc., East of Suez Petroleum Study

〈그림-2〉 국내석유제품 수요의 추이



(2) 석유제품 국내수요의 추이와 향후 전망

석유제품 수요 그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정유공장의 능력이 작기 때문에 원유는 수출하고 석유제품의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다. 제품 수입선은 이전에는 대부분이 구소련이었지만 90년대부터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주변국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수요 증가에 한정해서 본다면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종별로는 수송용 휘발유, 산업용 경유의 수요가 왕

성하다. 중유의 수요가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이것은 발전을 수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도 관계가 있다.

향후 석유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각 싱크탱크에 의해 각양각색의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휘발유·경유와 같은 수송용연료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의 확대에 대하여 정유공장의 건설이 늘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석유제품공급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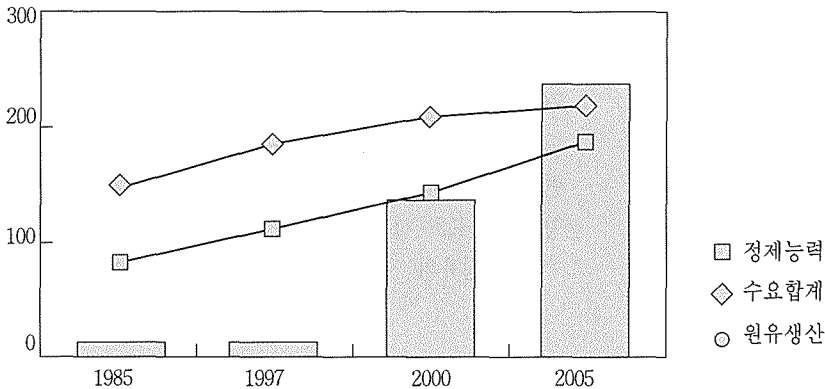
〈표-6〉 석유수급 전망

(단위 : 천 B/D)

	실적	전망			증가율 전망	
	1995	1997	2000	2005	1995-2000	2000-2005
L P G	0.2	0.4	0.5	0.8	20.1%	9.9%
휘 발 유	23.0	28.0	38.0	48.0	10.6%	4.8%
JET/등유	10.0	12.0	16.0	20.0	9.9%	4.6%
경 유	38.0	45.0	60.0	77.0	9.6%	5.1%
중 유	16.0	20.0	26.0	33.0	10.2%	4.9%
기 타	1.4	1.6	1.7	2.2	4.0%	5.3%
수요합계	88.6	107.0	142.2	181.0	9.9%	4.9%
정제능력	9	9	139	239		
원유생산	150	179	203	213		

〈자료〉 : Purvin & Gertz, Inc., East of Suez Petroleum Study

〈그림-3〉 석유수급 전망



## 4. 석유제품 유통판매

### (1) 석유제품 유통판매 주요기업

베트남에서는 석유제품의 유통판매에 있어서 외자의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제품의 수입판매는 아래의 국영기업만이 하고 있다. 수입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부 수입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정부는 수입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일된 정부정책의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페트로베트남이 총괄하고 있는 상류부문에 비해, 하류부문에서는 관계관청이 복수로 조직의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점도 많다. 하류부문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Petrolimex* : 상업성 관할의 베트남 최대 수입판매회사, 석유제품 및 윤활유를 수입하여 전국에 판매하고 있고, 공급세어는 6~7할 전후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품을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 재수출하고 있다.
- ② *Saigon Petro* : 호치민 인민위원회관할의 수입정제 판매회사, 호치민시와 그 주변에 20개社의 특약점과

150개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고, 전국의 공급세어는 20% 전후이지만 남부만 보면 50% 전후를 점하고 있다.

- ③ *PETEC* : 상업성 산하의 판매회사, 구 *Petechim*의 판매 부문이 남은 것으로 공급세어는 20% 전후.

- ④ *Petro Vietnam Oil Processing and Distribution Company = PVPDC* : 구 *Petechim*의 석유수출입 부문이 분리되어 *Petro Vietnam* 산하에 들어왔을 때, 원유수출업무는 *PVTC*

에 이관됨과 동시에, 제품수입업무는 新 *Petechim*을 설립하여 계속하였다. 한편 같은 *Petro Vietnam* 산하인 *Vidamo*는 *Shell*과의 윤활유 합병사업을 담당했다. 그래서 1995년 10월에 양사가 합병사업을 담당했다. 그래서 1995년 10월에 양사가 합병하여 새로이 발족한 수입판매회사가 *PVPDC*이다. 제 1정유공장의 완성후에는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다.

### (2) 석유제품 가격 현황

국내 제품가격은 국가계획위원회 (*State Pricing Commission*)가 정기적으로 국제석유시장의 시황동향을 참고로 하여 최고가격 (*Ceiling Price*)를 설정 공포한다. 현재의 최고소매가격은 휘발유 3,300동/ℓ (약 20₩/ℓ), 경유 2,500동/ℓ (약 23₩/ℓ)이다. 최고가격의 범위내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자유로이 가격설정을 하지만 도매가격에 관해서는 유통경비를 맞추기위해 내륙으로 갈수록 비싸다.

### (3) 주유소 판매현황

베트남 국내의 주유소수는 약 2,000개로 대규모 유통 판매업자의 직영점도 있지만 특약점, 소매점에 의한 판매도 많다. 대규모 유통판매업자와 특약점, 소매점과의 관계는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강한 구속력은 없고, 복수의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특약점, 소매점도 적지 않다. 또한 주유소에 외국 메이저의 폴사인이 걸려져 있는지, 도색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실제 판매업무는 허가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것은 메이저의 선전용이다.

#### (4) 석유제품의 물류 현황

물류에 관해서는 대규모 유통판매업자가 주요한 시설 및 수송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시설은 업자간에 임대차를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한다. 최근 수요의 급증에 따라 기존물류설비의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졌고, 특히 대형탱크의 입항이 불가능한 항만시설의 정비·증강, 저유소의 신증설 등이 과제이다.

#### (5) 유통판매에 있어서 외자의 침입

국내 제품판매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침입이 연료유 분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LPG, 아스팔트, 윤활유 분야에서는 외자합병이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연료유 판매에 있어서 외자해금도 노릴겸 몇개의 외자계 기업이 침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활유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자와의 합병사업을 하고 있다.

- ① BP Petro : BP와 페트로리맥스와의 합병에 의한 수입제조판매회사
- ② Castrol ; Vietnam : Castrol과 Saigon Petro와의 합병에 의한 제조 판매회사
- ③ Shell 및 Viclamo : 합병에 의한 수입판매

#### (6) 석유제품의 품질

석유제품의 품질 규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최신의 것을 작성중이라고 전해지지만 실태는 수입판매회사의 관리에 위탁하는 부분이 많은 듯하다. 휘발유의 등급은 RON 83과 92가 있지만 둘다 유연이다. 저급의 휘발유도 많다. 또 경유는 황분이 1~0.5%이다. 어쨌든간에 주변 아시아 여러나라와 같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큰 흐름에 따라 앞으로는 휘발유의 무연화, 경유의 저유황화가 과제가 될 것이다. (계속)

#### 용어해설

**B<sub>2</sub> 자금**  
한은, 교환결제자금 등 부족한 은행에 대출

한국은행이 교환결제자금이나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출해주는 자금.

보통 교환결제 부족 자금이나 지준부족 자금, 유동성조절자금 등으로 부른다.

은행이라면 마땅히 적립해야 할 기준을 쌓지 못하는 은행에 지원되기 때문에 벌칙성 성격이 강하며 이 자금을 사용하는 은행의 대외신인도도 실추된다.

은행들은 당일 교환돌아오는 자금을 제때 막아야 한다. 또 보름에 한번씩 쌓기로 돼있는 지준도 제시간에 적립해야 한다. 만일 지준 등을 제때 막지 못하면 일종의 「부도」로 간주된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교환결제자금이나 지준이 부족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이것이 바로 B<sub>2</sub>자금이다.

금리는 직전 15일간의 평균콜금리에 2.0% 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다소 높다. 일종의 벌칙성 성격이 가미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B<sub>2</sub>자금한도는 필요지준액의 1백%까지 (하룻동안은 50%까지)다.

##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 정유사 판매가격

(단위 : 원/ℓ)

	무연휘발유					등 유					경 유(0.1%)					저유황B-C유(1.0%)				
	'97. 8-9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세전가격	186.12	186.12	186.12	199.76	199.76	210.85	210.85	210.85	214.34	214.34	200.43	200.43	200.43	221.42	221.42	151.97	151.97	151.97	160.31	160.31
세후가격	728.44	728.44	728.44	743.44	743.44	285.56	285.56	285.56	289.40	289.40	281.20	281.20	281.20	304.28	304.28	167.16	167.16	167.16	176.34	176.34

〈주〉 소수점 3자리 이하 사사오입/매주 수요일에 조사. 제 3, 4, 5주는 8월, 제 1, 2주는 9월임.

### 대리점 판매가격

(단위 : 원/ℓ)

지 역	무연휘발유					등 유					경 유(0.1%)					B-C유(1.0%)				
	'97. 8-9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서울특별시	738.54	739.16	738.85	746.91	750.16	291.69	292.01	291.85	294.16	295.03	287.54	287.66	287.60	299.51	304.88	173.99	173.99	173.99	178.21	184.69
부산광역시	742.58	742.42	742.21	760.63	759.42	294.69	295.36	294.62	298.58	298.72	290.00	291.92	289.74	312.41	312.77	171.97	173.01	171.83	177.53	179.48
대구광역시	741.17	741.17	741.67	749.33	757.92	292.64	292.98	293.19	294.67	297.17	288.19	288.32	287.42	300.96	313.07	173.68	173.68	173.89	178.68	-
인천광역시	741.17	741.17	741.17	751.17	755.33	294.83	294.83	294.83	295.50	297.17	289.83	289.83	289.83	304.17	312.50	-	-	-	-	-
광주광역시	745.37	745.50	745.44	760.83	760.67	295.29	295.09	295.19	298.95	299.78	289.26	289.06	289.16	312.03	313.03	176.54	176.54	176.54	185.77	186.81
대전광역시	753.42	753.42	753.42	761.92	761.92	294.81	294.81	294.81	298.67	298.67	291.43	291.43	291.43	312.47	312.47	174.37	174.37	174.37	183.61	184.65
울 산	742.33	742.33	742.40	757.25	753.92	292.84	294.06	293.53	298.75	293.67	288.13	288.46	288.20	313.72	309.80	175.67	175.67	175.89	192.14	186.23
경 기	738.59	738.59	738.53	754.51	754.51	291.98	291.98	291.98	295.84	295.84	286.00	286.00	286.00	309.47	309.47	174.70	174.70	174.70	182.49	187.01
강 원	739.50	740.50	740.25	750.83	750.99	292.47	293.14	292.97	295.67	292.33	287.58	287.89	287.81	303.69	308.96	175.16	175.50	175.58	180.70	184.74
충 북	744.32	744.03	744.35	760.53	760.63	295.49	297.01	295.82	301.17	299.92	291.94	291.23	291.38	314.73	314.57	173.74	174.37	173.03	182.76	184.95
충 남	738.05	736.72	736.98	755.58	759.13	291.83	291.00	290.85	296.50	298.25	288.25	286.47	286.67	311.72	311.88	174.90	174.62	175.65	183.42	185.57
전 북	742.50	742.58	742.83	758.42	757.17	293.64	293.64	293.60	300.67	298.17	288.67	288.67	288.63	312.14	312.47	172.27	172.27	172.27	180.47	181.37
전 남	745.50	745.50	745.46	761.83	761.83	296.73	296.73	296.73	300.75	300.75	291.00	287.67	289.34	314.47	314.47	174.65	174.65	174.65	184.78	187.79
경 북	744.42	744.42	744.25	752.00	754.75	295.31	295.48	295.27	297.50	298.00	293.00	289.50	291.19	301.63	305.30	173.91	173.91	174.34	181.70	184.67
경 남	740.50	740.50	740.63	750.83	756.33	290.31	290.31	290.71	293.17	296.84	286.17	286.17	286.27	301.97	311.14	175.17	175.17	175.17	184.40	186.31
제 주	760.75	760.75	760.94	776.25	776.25	304.00	304.00	304.22	307.50	307.50	297.00	297.00	297.22	320.50	320.50	-	-	-	-	-
전국평균	743.39	743.22	743.31	756.10	757.61	294.11	294.28	294.16	297.71	297.72	289.51	289.01	289.06	308.58	311.37	174.30	174.45	174.42	182.47	184.75

〈주〉 소수점 3자리 이하 사사오입/매주 수요일에 조사. 제 3, 4, 5주는 8월, 제 1, 2주는 9월임.

### 주유소 판매가격

(단위 : 원/ℓ)

지 역	무연휘발유					등 유					경 유(1.0%)				
	'97. 8-9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1주
서울특별시	801.42	801.34	801.20	816.42	816.70	334.73	334.73	334.74	338.43	338.71	328.12	328.12	328.12	350.20	351.52
부산광역시	791.53	790.38	790.81	806.38	808.56	335.84	335.84	335.84	339.13	339.52	328.47	328.47	328.47	348.22	351.59
대구광역시	792.50	791.06	791.52	805.13	805.13	335.00	333.67	334.34	338.07	338.40	328.94	328.94	329.19	348.50	351.50
인천광역시	802.75	802.30	802.15	815.84	816.60	334.75	334.75	334.74	338.42	338.70	329.05	328.15	328.65	350.00	351.45
광주광역시	799.60	799.60	799.50	813.10	812.10	334.80	334.80	334.80	338.40	338.40	328.90	328.90	328.90	349.00	351.20
대전광역시	794.30	793.70	794.00	805.90	806.50	334.70	334.70	334.70	338.00	338.40	328.20	328.20	328.20	349.10	351.40
울 산	800.30	800.30	800.30	816.00	815.70	334.00	334.00	334.67	338.78	338.78	328.10	329.10	329.06	352.80	352.60
경 기	800.00	799.18	799.62	813.61	815.44	334.64	334.61	334.61	338.27	338.69	327.77	327.77	327.82	349.13	350.94
강 원	802.71	801.97	802.22	817.63	817.56	335.47	335.49	335.47	339.82	339.60	328.74	328.89	328.94	351.31	351.92
충 북	798.00	797.76	797.15	811.86	813.38	334.68	334.68	334.68	338.68	338.89	328.50	328.52	328.52	350.10	351.19
충 남	800.80	800.67	800.87	815.57	815.30	334.50	334.50	334.50	338.00	338.61	328.23	328.23	328.23	349.07	351.43
전 북	800.89	800.54	800.64	815.43	816.68	334.75	334.42	334.59	338.42	338.92	330.21	329.57	329.85	348.96	351.04
전 남	800.25	800.21	799.95	814.60	815.19	334.52	334.52	334.51	337.98	337.89	328.67	328.63	328.80	349.56	351.29
경 북	799.00	799.09	799.28	811.48	814.48	334.84	334.84	334.84	337.97	338.92	327.93	327.93	327.92	345.73	350.77
경 남	793.20	793.45	793.37	811.05	809.60	334.61	334.66	334.66	338.30	338.37	329.28	328.73	328.98	349.59	350.95
제 주	804.75	803.88	803.20	818.00	820.86	334.86	334.86	334.94	338.43	339.00	334.38	334.38	334.38	354.00	357.29
전국평균	798.95	798.59	798.66	813.30	813.94	334.81	334.76	334.80	338.44	338.73	328.63	328.53	328.62	349.30	351.38

〈주〉 소수점 3자리 이하 사사오입/매주 수요일에 조사. 제 3, 4, 5주는 8월, 제 1, 2주는 9월임.



## 석유 동향 지표

### 7월중 석유지표

(단위 : 천배럴)

	1996		1997		증 감 (% , %P)	
	7	1-7	7	1-7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원유도입	60,086	391,583	64,424	492,659	7.22	25.81
(단가, \$)	18.12	17.85	18.03	19.95	-0.49	11.76
(원유대, 천\$)	1,088,555	6,991,028	1,161,436	9,829,618	6.70	40.60
원유처리	60,532	392,737	69,638	492,049	15.04	25.29
(가동률, %)	96.76	93.99	92.14	95.20	-4.62	1.21
제품생산	59,886	398,213	69,538	494,693	16.12	24.23
제품소비	49,250	411,905	53,479	422,665	8.59	2.61

<주> 단가, 원유대는 FOB기준

### 지역별 원유도입

(단위 : 천배럴)

	1996		1997		증 감 (%)	
	7	1-7	7	1-7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중동	50,888	307,142	50,001	368,384	-1.74	19.94
동남아	6,783	48,998	9,615	65,520	41.74	33.72
미주	693	11,390	794	13,952	14.60	22.49
유럽·아프리카	1,040	20,786	4,015	40,347	285.97	94.10
오세아니아	682	3,267	-	4,457	-	36.40
계	60,086	391,583	64,424	492,659	7.22	25.81

### 석유제품 수급

(단위 : 천배럴)

	생 산		소 비		생 산 증 감 (%)		소 비 증 감 (%)	
	7	1-7	7	1-7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휘발유	5,932	41,022	6,380	39,490	32.35	1.36	19.92	3.08
등유	4,834	37,400	1,177	41,743	80.85	53.30	4.16	3.30
경유	21,074	150,455	11,974	96,376	13.22	26.15	7.82	-5.41
B-C유	17,515	129,782	12,196	97,156	-3.58	10.77	-2.92	2.56
나프타	12,074	88,739	13,429	87,083	44.75	59.28	15.47	10.84
프로판	730	3,947	3,196	28,773	64.79	35.12	12.18	2.18
부탄	1,336	6,426	2,151	12,395	16.28	-3.43	16.97	4.84
아스팔트	1,377	7,717	943	5,599	26.68	39.07	-0.95	19.64
기타	4,666	29,205	2,033	14,050	-5.41	11.98	9.24	5.32
계	69,538	494,693	53,479	422,665	16.12	24.23	8.59	2.61

<주> 제품소비는 내수기준

### 석유제품 수출입

(단위 : 천배럴, 천달러)

	수 입		수 출		수 입 증 감 (%)		수 출 증 감 (%)	
	7	1-7	7	1-7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물량	14,182	110,843	23,901	153,298	18.51	-22.46	11.79	41.63
액	296,262	2,752,024	485,985	3,480,758	28.14	-11.51	8.46	48.57

<주> 수출은 국제빙커링 및 미군납 포함